

구애 수위 높이는 국민의힘...호남 민심 움직일까

보수정당 첫 추모제 초청 받고
오월정신 헌법 수록 잇단 천명
5·18 계기 '호남 동행' 정책 가숙
"정략적 서진정책 결코 성공 못해"
호남민심 반응 민주당도 촉각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서진(西進)정책'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다. 정치적 불모지인 호남을 적극적으로 공략, 혁신 보수로의 정체성 전환과 전국정당화를 도모하는 서진정책이 상당한 효과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서진정책이 진정성을 갖출지 내년 대선 호남에서 10% 이상의 지지율은 물론 전국의 호남 민심을 녹이면서 국민의힘 정권 탈환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민주당은 내년 대선에서 80년 광주를 유혈로 진압한 군사정권의 후예인 국민의힘의 구애가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호남 민심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도권 등 호남 민심의 민주당 지지세와 결집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단, 국민의힘 서진정책은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장 이번 5·18 추모제에 국민의힘 정운천, 성일종의원이 공식 초청됐다. 보수정당 소속 의원이 5·18 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힘을 보태는가 하면 그동안 5·18 단체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는 등 5월 광주 문제에 진정성을 보여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5·18 국립묘지 무릎사과와 호남을 제2의 지역구로 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호남 동행' 프로젝트, 김기현 원내대표와 초선 의원들의 광주 방문 등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호남 민심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발 더 나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은혜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언젠가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길 바란다"고 적었다. 성일종 의원은 1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5·18 정신의 헌법 명문화에 대해 "이미 당의 정강·정책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이뤄지면 그런 부분들이 다 토론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역 현안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의 잠룡인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7일 광주시의회를 찾아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의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함께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서도 "가덕도 신공항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국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도 호남이 이슈가 되고 있다. 주호영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호남과 청년, 여성 공천 등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명문화해 전국정당, 세대 간 융광로 정당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비례대표의 절반을 청년과 호남에 할당해 당의 외연을 확장해 가겠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진정성이다. 국민의힘에서 서진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피부에 느껴지고 손에 쥐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서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당권 경쟁 과정에서 호남 민심의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 공약과 정책 등이 제시되는 한편 을 예산 국회에서 호남 현안 사업을 적극 배려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제 호남과 20·30세대와 함께 가지 않고서는 혁신도 전국정당도 물 건너가는 것"이라며 "서진정책은 차기 대선을 넘어 국가와 미래적 관점에서도 꼭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서진정책에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둔 정략적인 행보라면서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서진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내년 대선에서의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당내 주류세력의 태도가 단기간에 변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서진정책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극히 정략적인 부분이 크다"며 "호남 민심은 절대 간단하지 않으며 진정성을 담보하지 않은 정략적 서진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항공 인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대선주자 '빅3' 매머드 대선캠프 속속 윤곽

이재명, 초·재선 의원 주축

정성호·조성식 선대위원장 유력

이낙연, 대표 시절 인사들 배치

선대위원장 설 훈 의원 말을 듯

정세균, 중진 의원 대거 합류

선대본부장 김영주 의원 거론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이 본격화 하면서 각 진영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당내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현직 신분 탓에 캠프 구성을 구체화 하지는 않고 있지만 전국 각지에 지지 모임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19일 "단일 조직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구조가 아니라 청년·노동·여성·복지 등 각 분야별 다양한 포럼과 지지모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동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내 그룹을 중심으로 캠프 구성 방안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는 이재명계 좌장격인 4선의 정성호 의원과 전국 지지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을 이끄는 5선의 정책통 조성식 의원이 거론된다.

상황실장, 조직 운영, 정책 파트 등 주요 실무 포스트는 각각 김경진·임종성·김병욱 의원 등 재선그룹에서 분담할 가능성이 있다. 대변인 역할에는 원내대변인을 지낸 박성준 의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레인' 역할로는 정진상 경기도 정책실장,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 수석 등이 거론되는 상황으로, 추후 외부 기관에 몸담은 전문가집단도 합류할 전망이다. 오는 20일 이 지사 측 원내 모임인 '성장과 공정 포럼'이 발족하면 구체적인 캠프 구성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선대위원장은 설훈 의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맡았던 박광온 의원, 정책위의장을 지냈던 홍익표 의원이 각각 총괄본부장과 정책본부장으로 인선될 전망이다. 또 조직총괄본부장에 김철민

의원, 종합상황본부장에 최인호 의원, 인재영입위원장에 오영훈 의원이 거론된다.

이 전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윤영찬 의원은 비서실장과 대변인 역할을 당분간 겸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행은 오영환 의원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최윤열 신경민 전 의원과 노창훈 이낙연의원실 보좌관 등이 브레인 역할이고, 외교안보 부문은 신경민 전 의원 담당"이라고 전했다.

정세균 전 총리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은 4선의 김영주 의원이 맡을 전망이다. 실무 선대본부장에는 안규백(4선)·서영교(3선)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고, 비서실장 격으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거론된다. 조직본부장은 정 전 총리의 핵심인 이원욱 의원이, 직능본부장은 김교흥 의원이 각각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전략 지휘와 정부파트는 김민석 의원이 도맡는다고 한다.

공보단장에는 총리실에서 호흡을 함께 맞췄던 김성수 전 비서실장이 유력하다. 이밖에 정책 파트는 김성주 의원이 맡고, 전문가그룹 좌장은 윤성식 고려대 명예교수가 담당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22일 새벽 바이든과 '백신·비핵화' 공조 모색

문 대통령 방미 출국

오늘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19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공식 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하는 문 대통령은 19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한 뒤 여장을 풀고, 20일부터 공식 일정에 나선다.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는 것이 첫 일정이며 같은 날 오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포함한 미국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한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21일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두 차례 전화 통화와 기후정상회의를 통한 화상 만남에 이은 첫 대면 회담이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미 양국의 '코로나 백신 파트너십' 공감대가 형성될지 주목된다. 백신 스와프를 통한 백신 물량 확보,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구축 등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 반도체-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 협력 증진을 통한 경제 동맹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현안 역시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만큼 남북·북미 대화 복원을 포함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하고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한다. 그다음 날 워싱턴DC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문 대통령은 애플랜드로 이동해 SK이노베이션 현지 공장을 찾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후 귀국길에 오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대광새마을금고 창립 40주년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정기예탁금특판

1년 2.0% (200억한도)

MG 대광새마을금고

본점 062)222-5851

서남지점 062)227-1532

지산지점 062)222-1431